

# KIA 마무리 캠프 종료 ...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2024 시즌 초석 다지고  
본격 스토브리그 돌입  
2월 호주 스프링캠프 앞서  
개인 훈련 하며 ‘자신과 싸움’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4시즌 초석을 다진 KIA는 본격적인 스토브리그에 돌입한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했던 KIA 선수단이 28일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덱스 강화를 통한 전력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5년 만에 해외에 마무리 캠프를 꾸린 KIA는 지난 1일부터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체력과 기술 훈련을 진행했다.

캠프를 지휘한 김종국 감독은 “좋은 날씨에서 큰 부상 선수 없이 캠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 선수들이 올 시즌 부족했던 점과 필요한 부분을 인지한 상황에서 캠프에 임하면서 훈련 성과가 크다. 캠프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량으로 내년도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망향’ 이창진과 함께 ‘캠프 주장’ 이우성, ‘투수조 최고참’ 박준표 등 경험 많은 선수들도 참가했다. 이들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숏선수 범하면서 후배들을 이끌었고, 개인적인 훈련 성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창진은 꾸준한 시즌을 위해 새로운 ‘타격폼’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고, 1루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 마무리캠프 선수단이 지난 27일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에서 캠프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이우성은 수비훈련에 집중하면서 KIA 전력 옵션을 넓혔다. 박준표도 지난 2년 간의 부상을 털어낼 수 있는 재정보비 시간을 보냈다.

KIA가 가장 주력했던 ‘내야 댁스 강화’에서도 김종국 감독은 좋은 점수를 줬다.

김종국 감독은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규정 타석을 채운 정해원이 한층 성장했고, 신인 김두현도 수비력에서 가능성을 보였다”고 새 전력을 언급했다.

변우혁과 김규성은 간결한 스윙으로 타격 약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상무에서 전역해 호주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민도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KIA 내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마무리캠프가 끝났지만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다.

스프링캠프에 앞서 몸을 만들고, 마무리캠프에서 준비된 부분을 이어가는 게 선수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2월 호주 스프링캠프에 앞선 선수들은 개인 훈련을 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된다. 군전역·신인들은 합평에서 프로 벽을 넘기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재활군도 건강한 복귀를 위해 몸을 풀리게 된다.

결혼식도 이어지면서 선수들은 바쁜 12월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2일 전주에서 열리는 투수 장현식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KIA 선수단은 9일에는 수원외로가 ‘새신랑’ 최원준에게 축하 인사를 하게 된다. 이어 황대인이 16일 광주에서 식을 올리면서 선수들은 ‘12월 웨딩 주말’을 보낸다.

해외에서 캅을 가는 이들도 있다. 지난 17일 개막한 호주 프로야구 리그에 김현수·홍원빈·곽도규(이상 투수)와 내야수 박민이 캔버라 캐벌리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 참가했던 김기훈은 12월 중반 호주로 건너가 캔버라에 합류한다.

‘에비역’ 좌완 장민기와 2024투키 우완 강동훈은 12월 3일 대만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구단도 스토브리그 기간 올 시즌 부족했던 전력을 채워야 한다.

KIA는 지난 21일 고종욱과 2년 최대 5억원에 FA 도장을 찍었다. 지난 2년 타석에서 알짜배기 활약을 해준 고종욱을 잡은 KIA는 22일 진행된 2

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투수 이형범과 내야수 고명성을 영입했다.

하지만 내년 시즌 전력 구상에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 남아있다.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내야수 김선빈, 약속된 3년을 보낸 최형우와의 재계약도 남아있다. 김선빈과는 이견을 좁혀가고 있고 최형우도 세골 골절 부상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올 시즌 늑골 지 않은 타격 실력을 보여주면서 다년계약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수’ 구성이다. 지난 2년 순위 싸움의 발목을 잡았던 ‘빈틈’을 채우기 위해 KIA가 사활을 걸고 뜨거운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다. /wool@kwangju.co.kr



이소미

## 임진희·성유진·홍정민 Q 시리즈 ‘수석’ 도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다승왕 임진희가 ‘수석 합격’을 목표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웰리퍼인(Q) 시리즈 최종전에 나선다.

임진희는 다음 달 1일(한국시간)부터 엡세 동안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 코스에서 LPGA 투어 Q 시리즈 최종전을 치른다.

임진희는 이번 LPGA 투어 Q 시리즈에 나서는 선수 가운데 가장 세계랭킹(40위)이 높다.

LPGA 투어에서 뛰는 아디티 아쇼크(인도), 대니얼 강(미국), 짜네티 완나센(태국), 김아람, 가비 로페스(멕시코), 마야 스타르크(스웨덴) 등 익숙한 이름이 임진희보다 아래다.

세계랭킹 포인트 획득이 불리한 KLPGA 투어에서 뛰면서도 이만큼 세계랭킹이 높다는 건 임진희의 경기력이 LPGA 투어에서 뛰어도 하나도 뒤질 게 없다는 뜻이다.

LPGA 투어 Q 시리즈 수석 합격은 스타로 발돋움하는 발판이다.

줄리 잉스터, 박세리, 미야자토 아이, 이민지, 그리고 이정은과 유해란이 Q 시리즈 수석 합격에 이어 신인왕, 그리고 LPGA 투어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다.

임진희가 유력한 수석 합격 후보이지만 그동안 KLPGA 투어에서 경쟁하던 동료 선수 3명도 만만치 않다.

올해는 우승이 없었지만, 작년까지 통산 5승을 쌓은 이소미와 올해 2승을 포함해 3승을 올린 성유진 그리고 지난해 두산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 정상에



임진희



성유진



홍정민

올랐던 홍정민도 임진희처럼 수석 합격을 노린다.

올해 신인으로 LPGA 투어에서 뛰었지만 투어 카드 유지에 실패한 장효준, 주수빈과 36세의 이정은, 33세의 강혜지 등은 다시 LPGA 투어 복귀를 바라고 출사표를 냈다.

LPGA 투어에서 2차례 우승한 크리스티나 김, 1승을 거둔 에니 박 그리고 노예림과 제니퍼 송(이상 미국) 등도 올해 Q 시리즈를 통해 재기를 꾀한다.

300야드가 넘는 장타를 날리며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하위권으로 추락한 나타키리타 유타위랍(태국)도 Q 시리즈 재수에 나섰다.

Q 시리즈는 6일 동안 108홀을 도는 강행군이다. 작년까지는 8라운드 144홀이었는데 올해부터 축소했다. 4라운드를 마친 뒤 하위권 선수는 슈어내고 나머지 2라운드를 치러 순위를 가린다. /연합뉴스

## 신지에 세계랭킹 15위...파리 올림픽 출전 희망

신지에가 내년 파리 올림픽 출전에 필요 조건인 세계랭킹 15위에 올랐다.

신지에의 28일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16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15위였던 양희영이 신지에와 자리를 바꿔 16위로 내려앉았다.

파리 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려면 내년 6월 기준 세계랭킹 15위 이내에 들어야 유리하다.

15위 이내 선수 4명 이상인 국가는 4명 모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끝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시즌 최종전 리코컵 투어 챔피언십에서 4위를 차지한 신지에의 “내년에는 파리 올림픽에 가고 싶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양희영도 파리 올림픽 출전을 염두에 두고 있어 당분간 신지에와 양희영의 올림픽 티켓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리코컵 투어 챔피언십 2연패를 달성한 야마시타 미유(일본)가 3계단 뛴 19위로 올라섰고 지난 27일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안달루시아 코스타 델 솔 에스파냐 오픈에서 우승한 아디티 아쇼크(인도)는 18계단 상승해 41위가 됐다.

릴리아 부(미국), 린워닝(중국), 셸린 부티에(프랑스), 넬리 코다(미국), 이민지(호주), 고진영, 김효주는 1~7위를 그대로 지켰다. /연합뉴스

## 우즈, 부상 딛고 필드로 ... 히어로 월드챌린지 출전

### 세플러·호블란 등과 샷대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상을 딛고 필드로 돌아온다.

우즈는 30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바하마 뉴프로비던스의 올버니 골프 코스(파72)에서 열리는 히어로 월드챌린지에 출전, 정상급 골퍼들과 샷 대결을 벌인다.

우즈가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지난 4월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서 기권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우즈는 이후 오른쪽 발목 수술까지 받고 재활에 전념해 왔다.

우즈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술 부위는) 통증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한 부분을 고치면 다른 부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걱정도 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82승으로 샘 스니드(1912~2002년)와 함께 최다승 기록을 보유한 우즈가 내년에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대회의 최대 관심사다.

타이거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챌린지는 20명의 선수를 초청해 킷 탈락 없이 나흘 동안 경기를 치른다.

PGA 투어 공식 대회가 아니어서 성적이 페덱 스컵 포인트나 상급 랭킹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골퍼 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출전함에 따라 세계골



타이거 우즈

프랭킹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우즈는 이 대회에서 다섯 차례나 우승해 최다승을 자랑하지만 2011년 우승 이후 부상에 시달리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우즈는 작년 대회에서도 족저근막염을 이유로 개막 직전 기권했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를 꼽는다면 3연패를 노리는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1순위다.

세계랭킹 2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3위 이자 마스터스 챔피언 윤 람(스페인), 5위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는 출전을 고사했지만,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7위 맥스 호마(미국), 8위 매슈 피츠패트릭(잉글랜드)이 출전한다. /연합뉴스